

자연과 인간, 문화를 빚어내다

전남대박물관 1학기 문화강좌 3월 20일~6월
꽃·한옥·섬진강·농경·클래식 등 11개 강좌

전남대박물관이 2019년도 1학기 문화 강좌를 마련했다.

오는 3월 20일부터 6월까지 12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용지관 컨벤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문화강좌의 주제는 '자연과 인간, 문화를 빚어내다'. 강의는 모두 11강좌로 자연, 인간, 농경, 꽃, 섬진강, 클래식 등 다양한 소재를 아우른다.

먼저 첫 번째 강좌는 3월 20일 이영석 서양사학자(전 광주대 교수)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역사'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27일에는 박삼수 울산대 중국학과 교수가 '왕유, 시와 그림으로 담긴 자연'을, 4월 3일에는 김민구 전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농경의 시작, 문명을 열다'를 이야기한다. 10일과 17일에는 나성인 클래식 음악해설자와 신형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클래식의 선율을 타고

오는 봄', '순수한 과학 연구 지역, 남극으로의 진출'을 강의한다. 24일에는 전원경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인상파, 햇빛과 물결을 예술로 담다'를 주제로 인상파에 투영된 자연의 의미를 풀어낸다.

우리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한 강좌도 마련돼 있다. 5월 1일에는 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가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한민족'을 주제로 우리민족의 삶 속에 깃든 소나무와 대나무를 이야기한다. 이어 8일에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섬진강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남도의 강, 섬진강의 다양한 모습을 맛깔스럽게 강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이상현 한옥연구가가 '자연으로서의 한옥, 그리고 그 속의 인간'을 주제로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에 깃든 자연의 의미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며 22일에는 손철주 미술평론가가 '꽃은 속삭이고 동물



순창 섬진강 장군목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은 노래하네'를 주제로 강의한다. 마지막 29일에는 정혜수 한양대 문화연구소 연구원이 '나스카, 메마른 대지 위에 핀 염원'을 강의하는 것으로 1학기 강좌가 마무리된다.

접수는 계좌입금(광주은행 074-107-

016766 예금주 전남대학교박물관)으로 350명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일반인 11만원, 전남대 교직원 및 가족, 경로(만 65세 이상) 9만원이며 반드시 수강생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 문의 062-530-358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제길미술관 청년작가 조유나 초대전

3월 28일까지

조유나 작가 개인전이 오는 3월28일까지 광주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우제길미술관의 청년작가 기획초대전이다.

'Wave in the fa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모두 10편을 선보인다. 개인과 집단, 휴머니즘에 대해 이

야기해온 작가는 사회에 보여지는 가면 속의 나와 그 안에 숨겨진 자유에 대한 압박을 조형언어로 표현했다. 또 자신의 모습 뒤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교차되는 지점을 포착해 형상화했다.

합성수지를 소재로 작업한 신작 'flow'는 두상에 흘러내리는 느낌과 물결치는 모습을 표현해 감정을 나타냈으며 자작나무 합판, 스테인레스 스틸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한 조 작가는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15년 금호갤러리에서 'OBSESSION'을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개인전이다.

광주시미술대전 우수상, 전국조각가협회 우수작가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조각회·푸른흙, 남도조각가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24-660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연극협회 신임 회장에 원광연씨

원광연(50·사진) 아트컴퍼니 원 대표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연극협회는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예총회관 지하 1층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13대 지회장과 부지회장-이사-감사를 선출했다.

6년간 협회를 이끈 정순기 지회장에 이어 13대 집행부를 지휘할 원 지회장은 11대·12대에 걸쳐 협회 부지회장을 지냈다. '숨바꼭질', '남자군 두번째 이야기', '오리장대 위로 날다', '양로원 탈출기' 등을 연출한 중견 연극인으로 지난 2016년에는 작품 '경중비사'로 30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5관왕을 차지했다.

원 신임 지회장은 "광주연극협회가 200



원광연

여 회원 한 명 한 명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며 "소의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역 연극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지회장은 박영진, 양태훈씨가 선출됐고 정철, 윤여송, 최영화, 이현기, 임준형, 이영민, 오설균, 임홍석, 윤미란, 송정우, 김재석, 김은광, 고난영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감사에는 정관섭, 이정진씨가 선출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장 후보 6명 면접 진행

내달 초 합격자 발표

첫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하는 광주문예회관 회관장(4급 서기관급) 후보 면접이 30일 치러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열고 문예회관장과 민주인권평화국장 면접을 3시간 여 동안 진행했다.

시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문예회관장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원자 7명 전원으로 이날 면접에는 6명이 참여했다.

문화예술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전직 교수, 정치인, 전 시립예술단체 단장 등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이 공모에 참여했

다. 개별 면접으로 진행된 이날 적격성 심사에는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이 면접위원으로 나섰다.

후보당 15분씩 주어진 면접시간에 위원들은 시립예술단·공연 관리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며 적격성을 심사했다.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한 임용후보자 2명은 인사위원회로 회부된 뒤 결국 여부 조화를 거쳐 시장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초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에냥** 2월호 나와

주민자치 실현 '마을공동체' 탐방

초대석 문정희 시인... '위라벨 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첫 선

충간 소음, 이웃간 소통 단절, 나만 좋으면 되는 세상... 마을과 이웃의 개념이 사라져가면서 '마을 공동체'가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 예술매거진 '에냥'이 2월호 특집으로 '마을공동체 전성시대'를 준비했다.

마을공동체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인화와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살펴보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마을 활동가' 들을 만나봤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생명의 존엄'을 노래하는 문정희 시인이다.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동국대 석좌교수)은 50여 년간 시인으로서 삶과 여성문제, 생명의 존엄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다. 시인의 사유는 활발하고 시어는 당당하다. 1969년 '월간 문학'을 통해 등단한 지 올해로 50년을 맞은 시인을 만나 문학의 본질에 대해 들었다.

겨울에 찾으면 더 좋은 '문림의향'(文林義鄉)의 고장 장흥으로 택지를 떠난다. '정남진(正南津)'을 지역이미지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장흥은 토요일과 편백수 우드랜드, 일출이 아름다운 소등섬, 천문과학관 등 둘러볼 곳이 많다. 겨울의 장흥은 먹방투어로도 제격이다. 매생이와 굴구이, 장흥의 1미(一味) 장흥삼합까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장흥으로 겨울여행을 떠나보자.

2월호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위라벨 시대, 문화관광이 뜬다'는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기획물이다.



유명 관광지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대신 역사와 문화, 예술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핫플레이스 남원이다.

강제문 시인의 '남도 섬과 토속음식'도 새로 시작된다.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토속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물의 음식과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남도 섬들의 가치와 토속 음식들의 레시피를 기록해보고자 한다. 예술의 섬 고흥 연흥도와 '썸뽕이' 요리가 그 첫 번째다.

이외에도 세계 미디어아트 시티-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문학관 기행-강진 시문학박물관, 극장가에 불어온 음악영화 열풍 등을 살펴보고 문화수집가 김세중 평창아트갤러리 대표, 2019 광주FC를 이끌어갈 주장 김태윤과 부주장 여름 선수를 만나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내일부터 발급

소의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99억원(국비 915억원·지방비 384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60만명 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7만원이던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은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소지한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라면 누리집으로 신청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를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